

광주 가장 비싼 땅 총장로 2가 m²당 1080만원

〈LG유플러스 매장〉

전남 최저지가 진도 조도면 옥도리 m²당 99원

땅값 1년새 광주 4.9%·전남 5.02% 올라

광주와 전남의 땅값이 지난해보다 각각 4.91%, 5.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에서는 동구 총장로 2가 우체국 맞은편 LG유플러스가, 전남에서는 순천시 연향동 1340-4번지 상업용 대지의 땅값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 가장 비싼 곳은 동구 총장로 2가 우체국 맞은편 LG유플러스가 m²당 1080만원이었으며, 가장 싼 곳은 m²당 611원인 광산구 사호동 산116번지였다. 두 곳의 땅값 차이는 1만 7676배였다.

전체 공시 대상은 38만3000 필지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4.9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2% 올랐다. 자치구별로는 남구 6.25%, 광산구 5.63%, 동구 4.79%, 북구 4.62%, 서구 3.57% 순으로 상승했다.

용도지역별로는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이 6.11%, 공업지역 5.37%, 주거지역 5.03%, 상업지역 2.67% 등 상승률을 기록했다.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송정역 KTX 개통, 평동 3차 산업단지 조성,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개관, 주택재개발사업

들이 땅값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전남지역 올해 토지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5.02% 올라 총 지가총액이 97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 대상 토지는 449만 필지다. 산업단지 조성, SOC 확충, 실거래가 반영 등의 영향을 받아 지난해보다 5.02% 상승, 전국 평균 상승률(5.08%)과 비슷했다.

지역별로는 영광이 특수토지인 원전부지 표준지 현실화 추진에 따른 가격 상승이 개별지에 반영돼 13.69%로 가장 많이 올랐다.

담양은 귀농·귀촌에 따른 전원주택 부지 수요 증가 등 실거래 반영으로 9.32%, 구례는 전원단지 조성으로 표준지 상승분이 개별지 상승을 이끌어 7.58%, 나주는 도시개발 용도변경, 혁신도시 활성화에 따른 기대

심리 등의 영향을 받아 6.94% 상승했다.

전남에서 가장 적게 오른 지역은 목포시였다. 일부 신 개발지역은 소폭 상승했으나, 도심지가의 보합추세로 상승폭이 1.28%에 그쳤다.

전남 지역 최고 지가는 1m²당 386만원인 순천시 연향동 1340-4번지 상업용 대지다. 최저 지가는 1m²당 99원인 진도 조도면 옥도리 283번지(자연림)도 조사됐다.

한편, 31일 공시되는 지가는 일사판리 광주시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kras.gwangju.go.kr)과 각 구청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은 관할 자치구 민원봉사과에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근로자·장애공무원 보호

광주시의회 조례 잇단 발의

광주시의회 정례회 개최를 앞두고 근로자, 장애 공무원 등의 보호 조례가 잇따라 제출·발의돼 눈길을 끈다.

30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사회통합추진단은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조례안은 광주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장은 근로자들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면서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례안은 규정했다.

시장은 또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근로자를 위해 노동정책 기본방향,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추진목표와 실행, 노동교육 등 관련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 시행해야 한다.

노동권익보호위원회도 설치된다.

시의회 이정현 의원은 감정 노동자 보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 소속 기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 기관, 사무 위탁기관, 시 지원을 받는 시설 등 감정 노동자가 보호 대상이다. 시장은 감정 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 등을 위해 3년마다 근로환경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조례는 매년 실태조사, 노동인권 교육 등에 관한 내용과 함께 폭력·폭행·성적 수치심 유발 시 단계별 보호조치도 명시했다.

시의회 조오섭 의원은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인사관리에서 우대 정책을 하도록 제안했다.

조례안은 교육·훈련, 근무환경, 지원 전문기관 지정 등 내용도 담았다.

조례안들은 다음달 1~13일 시의회 정례회 회기에 처리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농구 관람하는 김정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북한 소백수 남자 농구팀과 중국 올림픽 남자 농구팀 간의 친선 경기를 관람했다고 조선중앙TV가 30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는 노동당 최룡해 정치국 상무위원, 오수용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일환 중앙위 근로단체부장, 김여정 선전선동부 부부장, 조용원 중앙위 부부장과 리중무 체육상 등이 경기를 함께 관람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광주시 '광주형 일자리 위원회' 만든다

시의회·노동자 등 15명 구성

조례안 제출... 컨트롤타워 역

광주시가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하고 있는 이른바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등을 끌어갈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실현할 컨트롤타워를 설치한다.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은 30일 노·사, 학계,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보

장하는 등 내용의 '광주형 일자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광주형 일자리 창출과 운용을 총괄할 기구로 일자리 모델 정립, 사회적 합의 도출, 새로운 노사관계 파트너십 형성 등에 관한 심의·자문을 맡는다.

광주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회·노동·사용자·시민사회의 추천·대표자 15명으로 구성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사무국을 사회통합추진단에 두거나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별도로 15명 이내 실무위원회도 둘 수 있다.

조례는 다음달 1일 시작되는 시의회 회기 중 처리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대기업 생산시설을 유치하면서 제3의 법인을 신설해 이에 소속된 신규 인력에 적정임금을 적용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복안을 구상하고 있다.

특정 기업의 평균보다 낮은 임금의 일자리를 만들어 구직자들에게 제공하고 인건비를 줄여 대기업 투자를 유인해 일자리를 더 늘리는 선순환을 만든다는 것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中 관광객 2만명 유치 협조하겠다”

이낙연 전남지사 상생 밝혀

이낙연 전남지사가 30일 광주시의 중국인 관광객 2만명 유치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초청 서재필실에서 사업소·출연기관 토론회를 갖고 “산하기관에서도 광주와 전남의 상생협력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사안에 따라 함께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은 함께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상생협력의 원칙을 제시했다.

이어 광주시가 중국 여행사 등과 중국 관광객 2만 명 유치협약을 한 것과 관련 “유연한 광주시장과 전화를 통해 중국인 관광객을 전남에서도 안내하는 것을

협력하기로 했다”며 “광주와 공동으로 한다는 생각보다는 보완역할을 한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실무협상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바다를 보고 싶어 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어느 바다로 안내할 것인가, 도시 집중으로 고향을 잃어 마음 속에 고향을 담고 있는 중국인들을 위해 ‘한국인의 고향 전남’을 상징할 장소로 어디를 안내할 것인가를 광주시와 상의하라”며 “전남이 경험하지 못한 대규모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음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화장실을 비롯한 편의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준비해 대처서 허둥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현석기자chadol@

전남도, 中 교류 희망 중학생·대학생 50명 모집

전남도는 오는 7일까지 중국 장시성·산시성 청소년 국제교류에 참가할 중학생·대학생 50명을 공개모집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장시성 청소년 국제교류는 양국의 대학생들이 매년 상호 방문해 홈스테이, 학교 및 기관 방문, 역사·문화체험 등을 통해 신뢰와 우정을 쌓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산시성과의 중학생 국제교류는 올해 처음 실시돼 격년제로 상호 방문하며 올해 산시성에서 먼저 전남 중학생 25명을

초청했다. 전남에 주소를 두고, 전남지역 중학교에 재학 중인 1~2학년과, 광주·전남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 1~3학년 대학생이면 참가할 수 있다. 교류 기간 중 2박3일간 홈스테이가 가능해야 한다.

참가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6월께 최종 확정되며, 왕복 항공료와 중국 현지 체재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팀(061-286-5972)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현석기자chadol@

광양복합업무·웰빙카운티단지 개발 시행자 공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3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광양복합업무단지와 웰빙카운티단지 통합개발을 위한 사업시행자를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광양복합업무·웰빙카운티단지는 광양시 광양읍 도월리 일원 4,701㎡(142만평)를 복합업무 시설과 1만7000명 수용의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를 거쳐 2020년까지 민자 1조 1694억원을 투입해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곳은 남해고속도로,

경전선, 국도 2호선 등 접근성이 좋은 지리적 요충지로 택지개발의 최적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또 북측으로 광양역, 10분 안팎의 거리에 광양항과 광양제철소가 있고 인근에는 현재 기능성 바이오소재 유치를 위한 3.0㎢(91만평) 규모의 세종산단입지를 개발 중이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오는 11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누리집(<http://www.gfez.go.kr>) 게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이종희기자 golee@kwangju.co.kr

전남도-목구조기술인협회, 목재 기술자 양성 협약

전남도는 30일 초청 정약용실에서 국립산림과학원, (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와 목재와 목재를 이용한 건축모델 개발 및 기술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의 단점 등을 보완할 기술을 개발해 건축비를 낮추고,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하는 목구조건축모델을 개발해 전남지역 자연휴양림과 산촌생태마을에 보급한다.

(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는 목구조 시공과 관리를 할 수 있는 기술자 양성 교육을 한다.

이번 협약 체결은 최근 귀농·귀촌 증가, 건강·힐링 열풍 등으로 인해 인기를 끌고 있는 목구조주택이 안고 있는 높은 가격, 어려운 설계, 전기료 부담, 주거 불편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수술 방법

-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인치료
- 인공 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인치료
- 각막에 초점밀 미세 인레이를 삽입하여 노인치료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부작용: 수술 초기 아찔 및 번짐, 노안시력 수술시 건조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료광고심의필 제 140611-중-59153호

법무법인 맥 설립인사

그동안 각자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 뜻을 모아 '법무법인 맥(脈)'의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반 소송업무(민사/형사/가사/행정 등) 뿐만 아니라 기업법률 자문분야 등에서도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를 신뢰하고 성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새로운 출발에도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 분야

- 민사/가사/행정 소송
- 형사소송/수사 대응
- 기업법률자문/기업회생·파산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 행정심판/조세심판/소청심사

대표변호사 **조재건 서정암 문방진**
노 로 권오성 **울림**

주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106 법무법인 맥 빌딩 · 전화 062)236-4000
순천분사무소 ▶ 전남 순천시 황지로 30, 거형빌딩 202호 · 전화 061)727-7099 · 팩스 061)721-4552

구성원 변호사

- 조 재 건**
사법연수원 24기
전 순천지원 부장판사
- 서 정 암**
사법연수원 26기
전 광주고법 판사
- 문 방 진**
사법연수원 26기
전 장흥지원장
- 노 로**
사법연수원 29기
전 광주지검 검사
- 권 오 성**
사법연수원 33기
전 광주지검 검사

소속 변호사

- 윤 철 호 (서울대 법학과, 사사45회)
- 박 충 배 (서울대 철학과, 변시 1회)
- 김 경 욱 (전남대 법학과, 변시 1회)
- 민 양 이 (경희대 정외과, 변시 3회)
- 정 은 혜 (연세대 법학과, 변시 3회)
- 류 노 엘 (조선대 법학과, 변시 4회)
- 정 찬 욱 (경향대, 변시 4회)